

홍상수 감독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주연 김민희

제67회 베를린영화제
韓 첫 여우주연상 수상



“누군가에 가슴 깊은 울림 되길” ... 내달 국내 개봉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이 영화제 역사상 한국 여배우가 본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하게 생각한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면서 “(영화)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김민희가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월초저녁'의 저명 감독 폴 베호벤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은 18일 저녁(현지시간) 흥 감독의 19번째 장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공 '영희' 역할을 소화한 김민희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감독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영화 작업을 하는 것에) 큰 힘이 됐다”면서 “감독님은 항상 저에게서 '최고'를 끌어내 주셨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이 3대 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해 수상 영예를 안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영화 '하하하'로 칸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탔다.

김민희는 공식 경쟁 부문에서 다른 17편과 경합한 이 영화에서 유부남 영화감독과 불륜의 사랑에 빠졌던 여배우 '영희'를 열연했다. 극중 영화는 독일 함부르크와 강릉에서 지인들을 만나 사랑과 삶에 대해 질문하고 반민한다.

김민희의 국제영화제 수상은 그의 연기 인생만큼 드라마틱하다. 큰 키와 개성 있는 얼굴로 잡지와 CF 모델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민희는 1999년 드라마 '학교 2'로 연기자로 데뷔했다.

한국영화는 1961년 강대진 감독이 '마부'로 베를린 영화제 특별공감을 탄 것을 시작으로 3대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상을 받았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흥 감독과 김민희 씨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가 영화와 유부남 영화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시선에 강하게 반론하는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여러 군데 나와 관심을 끌었다.

그 뒤로도 여배우보다는 '패셔니스타' 등 모델 출신 이미지가 더 강했다. 그러나 2008년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가능성을 드러내더니 2012년 변영주 감독의 '화차'를 통해 진정한 배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베를린영화제에선 장선우 감독이 1994년 '화염'으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받았다.

김민희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아가씨 히데코 역을 맡아 호연하면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칸 영화제 진출 당시에도 여우주연상 수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2005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해마다 중요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명예황금곰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7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로 알프레드 바우어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흥 감독과 김민희 씨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가 영화와 유부남 영화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시선에 강하게 반론하는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여러 군데 나와 관심을 끌었다.

김민희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알프레드 바우어상은 가장 혁신적인 영화에 주는 상. 2011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동생 박찬경과 함께 만든 단편 '파리만정'이 단편 경쟁부문 황금곰상을 받기도 했다.

김민희는 “좋은 감독과 좋은 작품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다. 객석의 흥 감독은 박수를 치며 미소 띠고 박수를 축하하는 모습이였다.

김민희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아가씨 히데코 역을 맡아 호연하면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칸 영화제 진출 당시에도 여우주연상 수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다음 달 국내 관객을 만난다. 영화 홍보사 무브먼트 관계자는 19일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3월 개봉한다”며 “홍상수 감독이 귀국하면 개봉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희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영화가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이른바 3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배출한 것은 2007년 칸영화제를 빛낸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 이어 10년만이다. 30년 전인 1987년에는 강수연이 '씨받이'로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국내 개봉에 앞서 흥 감독과 주연인 김민희가 국내 언론과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흥 감독과 배우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극장 무대 인사 등을 하지만, 불륜설에 휩싸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개봉 때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로 배우 김지영 별세

2년간 폐암 투병

급성 폐렴으로 숨져

마지막까지 연기 활동



원로 배우 김지영 씨(사진)가 19일 오전 6시51분 별세했다. 향년 79세.

김지영 씨는 2년간 폐암으로 투병했다. 주변에 알려지 않고 투병하면서도 연기활동을 이어가셨다”면서 “그러다 지난 17일 급성 폐렴이 오면서 결국 오늘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고인은 최근에도 드라마 ‘여자를 울려’ ‘판타스틱’ 등에 출연했고, 차기작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딸은 “두 달 전 호스피스 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봄에 새로운 작품을 해야 한다고 다리 운동을 하는 등 삶의 의지를 불태우셨다. 5월에 새로운 작품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서울 토박이인 그는 생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투리는 지방을 다니면서 틈틈이 익혔다”며 “시청자 계 보답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연마했다. 시청자나 관객이 ‘그 할말이 때문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향 말 들어보네’라고 한다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약국단 생활을 시작으로 연기에 뛰어들고 고인은 1960년 ‘상속자’로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TV와 스크린을 총망무진 오갔다.

고인의 딸은 “엄마가 폐암을 숨기고 연기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했다. 최근작에는 유난히 얼굴이 부어 보이게 나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러나 배우를 천직으로 사셨던 분이라 끝까지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100여 편의 영화와 그보다 훨씬 많은 드라마에 출연해온 그의 대표작은 연기 인생 후반부에 몰려왔다. ‘바람은 불어도’ ‘장미빛 인생’ 등의 드라마와 ‘해운대’ ‘국가대표’ ‘파파도’ ‘아라한 장풍대전’ 등 영화에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어 “같은 여자로서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안타까웠으나,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너무나 존경했다”면서 “우리 엄마지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약겨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1.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Table with EBS1 program schedules. Columns include time, program name, and other detail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24일 戊寅).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